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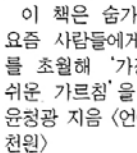
새로 나온 책



▲관무량수경 강설= 무량수불 즉 아미타불과 그 국토를 사념의 대상으로 관찰하는 방법을 밝힌 경이 관무량수경이다. 혜경스님이 펴낸 이 책은 무량수경의 전반적 내용을 해설하고 있다. 본문 역문을 실었으며 이에 대한 뜻과 저자 특유의 해설이 곁들여져 있다. 또한 난해한 한자와 용어에 대해서는 주(注)까지 표기해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했다. (집문당, 8천원)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게= 우리나라 고승들의 삶과 사상을 재미있는 일화를 중심으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엮은 고승 열전 23번째 보덕스님.



이 책은 숨가쁘게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에게 종교와 시대를 초월해 '가장 따뜻하고도 쉬운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윤정광 지음 (언어문화사, 값 8천원)



▲우리의 석탑= 불교문화의 한 축을 이루는 탑의 실체와 의미, 그리고 역사상을 무엇인가. 단국대 사학과 박경식교수가 펴낸 <우리의 석탑>은 탑 전반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특히 국보·보물급 1백30기 석탑을 전체 사진과 함께 시대별 국가별로 분류해 특성과 의미 등을 알기 쉽게 사진적으로 정리했다. (역민사, 값 1만5천원)



▲함권으로 읽는 동의보감= 소수의 한의학 종사자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 이 책에 담긴 각종 신체 부위, 그곳에 생긴 질병,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과 약물은 17세기 조선시대의 체위를 느낄 수 있다. 마지막에는 10분10답을 구성해 동의보감과 관련된 핵심적인 논점을 정리하여 그릇된 편견과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 잡았다. 신동원 김남일 여인석 지음. (늘봄, 3만5천원)

宋代 81선승의 깨달음 소식

원철스님 번역 '선림승보전 상'

행장-기연-법문등 각범스님 정리 하권 올말 나와...선종사 연구 한몫



원철스님

중국 조사선의 화합산기였던 송대(宋代)를 살다간 선사들의 숨소리를 오롯이 들을 수 있게 됐다. 각범 혜홍스님(1071-1128)이 발과 귀로 찾아낸 81명의 조사탑이며 송대 불교사로 일컬어지는 <선림승보전>이 최초로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은 선사들의 생각과 말, 행동 가운데 지엽들은 모두 버리고 정실만을 모아 놓은 선종사서로 원철스님(실상사 화엄학림 강사)이 번역했다.

각범스님은 강서(江西)의 선맥에 뜨거운 시선을 보내면서 임제(臨濟)의 법맥을 중흥시킨 지연과 법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어느덧을 가든지 조사의 탑을 참배하였고, 노고(老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30년 이상이나 마음속에 고이 간직해 두었다가 만년(1121)에 상서의 남대사에 머물면서 필생의 역작으로 <선림승보전>

30권을 완성했다. 이 책은 당말(唐末)부터 북송(北宋)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선승인 조산 본적(840-901), 운문 문연(846-949), 풍월 연소(896-973)스님 등 81명을 가려뽑아 전기와 기연 등을 기록한 것이다. 이처럼 <선림승보전>은 <경덕전등록>, <조당집> 등을 계승한 보다 정확하고 정선된 비중 높은 선종사서로 평가되고 있다.

도서출판 장경각에서 펴낸 <선림승보전 상>에는 15권까지 42명의 선사들의 행장, 기연, 법문, 찬 등이 읽기 쉽게 수록돼 있으며 금년말까지 30권까지 번역, 하권을 출간한다는 계획이다. 종래의 선종사서는 전등(傳燈)의 발상으로부터 교외법전(敎外別傳)·정법안장(正法眼藏)이라 불리지는 법

보의 전수를 축으로 했다. 그런데 각범스님이 굳이 승보(僧寶)를 말하는 것에서 그의 새로운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수행자 개인의 말과 행동을 제외하고 정법안장이란 있을 수 없다. 결국 사람이 도를 넓혀가기 때문이란 것이 각범스님의 지론이었기 때문이다. 깨개의 승보를 빼놓고는 송대의 불교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선림승보전>에 수록된 선사들의 주옥같은 법문들을 읽다 보면 가슴이 텅 비어 버린 듯한 시원함을 느끼게 한다. 안팎으로 화력과 같은 상황들을 몸으로 부딪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요즘, 걸출한 선사들의 깨달음 말씀은 청량한 정신을 되찾게 해주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무비스님은 서문에서 "많은 사람들



이 깨달음의 화두가 풀리고 모두가 깨달음의 삶을 추구하는 길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선종사서 연구에도 큰 몫을 할 것이다"고 평했다. 역자 원철스님은 "(경덕전등록), <조당집> 이후의 선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행적을 알 수 있는 선종사서 번역이 별로 없다는 점에 착안해 번역을 하게 됐다"며 "기존의 <전등록>류의 한글번역 성과를 집대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발간의 이유를 밝혔다. <값 1만8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황수영 전집 넷째권 '금석유문'

470여 금석문 자료-논문 19편 수록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금석문 자료가 책으로 나왔다. 황수영전집 제4권으로 출간된 <금석유문>은 금석유문, 한국의 금석문 등 2부로 나뉘어져 있다.

1부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금석문으로서 한국금석유문에 실린 내용과 그밖에 97년 황수영 박사가 발견한 9세기 말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삼화사 철불좌상배각명기를

비롯하여 포함 오사동종, 만일사 금동관음보살입상 등 최근 수집된 것까지 총망라했다. 4백70개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비명(碑銘), 탑(塔)·등명(燈銘), 조상명(造像銘), 종명(鐘銘) 등이 차례대로 배열하고 각각 시대별 연대별로 다시 배열하였다.

2부에서는 한국금석문 및 개별 금석자료와 관련, 저자가 발표한 삼국의 금석문 자료 등 19편의 논문이 수록돼 있다.



또 이 책에는 87개의 선정된 도판을 실어 본래 금석자료를 확인 대조해 볼 수 있도록 했다. <해안 권, 값 4만원>

교계에서 처음으로 '오디오 북'이 출간돼 화제다. 활자로 된 책의 행간 의미를 읽는 재미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저자의 목소리로 직접 듣는 감동 또한 그에 못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인생의 지혜를 일깨워 주는 책일 경우는 더욱 가슴속 깊이 다가갈 것이다.

'산에는 꽃이피네' 오디오 북 출간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산에는 꽃이 피네>(동쪽나라)가 오디오 북으로 출간됐다. 오디오 북 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의 절반은 저자 범정스님이 직접 읽었고, 나머지 절반은 스님과 오랜 교분이 있는 이계진이나 운서와 KBS FM방송의 이미지 아나운서가 읽었다. 스님의 소박한 목소리로 전해지는 인생의 지혜들은 독자들에겐 책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감동을 불러일으키기에 손색이 없다. <값 8천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영역 찰스 윌러 "한국불교 우수성 알리려고"

우리시대 최고의 기행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영어로 출판된다. 한국인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이 책을 번역해 낸 사람은 벽안의 불자 찰스 윌러(38)라는 미국인이다. 영역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는 전 3권 가운데 경주 관련 내용만 모았다.

찰스 윌러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영역하게 된 것은 한국불교의 본모습이 수록돼 있어 세계에 전하는 데 손색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년간 이 책을 번역하면서 그는 한국불교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다고

말한다. 그 중에서 불교사는 가장 큰 촉매 역할을 했다. 그는 "몇번 가보기는 했지만 절묘한 가량의 배치와 건물 하나하나에 붙여진 소중한 철학적 명칭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불교사를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번역에 고심했기 때문이다. 그가 비록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86년 송광사로 출가해 1년 6개월동안 수행 생활을 했지만 사찰의 속살까지 이해



리하는 습관이 생겼다. 지금까지 1천 매정도 정리했다. 앞으로 수정 보완을 통해 <한국불교사전>을 발간할 계획이다.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윌러는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찰 당우들의 상징적인 의미와 한국인만이 느낄 수 있는 단어들 번역하기 가장 어렵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번역할 때마다 불교용어를 영어로 정하는 습관이 생겼다. 지금까지 1천 매정도 정리했다. 앞으로 수정 보완을 통해 <한국불교사전>을 발간할 계획이다. 김중근 기자

찰스 윌러씨는 "영역본들이 번역자들마다 표기하는 방법이 달라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불교사전> 발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83년 미군 통역병으로 우리나라에 와 한국불교에 심취해 출가를 하고,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위해 서울대와 한림대에서 철학박사와 석사학위를 받는 윌러씨는 "불교철학자가 되어 세계에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 정	동쪽나라
2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나	한 형 조	여시아문
3	불교입문	조계종원집부	조계종출판사
4	불교 선수행의 핵심	송 위 지	시공사
5	기도	일 타	효림
6	보살의 마음 중생의 마음	일 타	민족사
7	가슴을 적시는...	성우·지연	민족사
8	있는 그대로	마하리쉬	한문화
9	신심명 중도가 강설	백인현·권정	장경각
10	입산	재 연	문화동네

구입문의: (02)737-0695

21 세기의 참사람

정철·서용·송담·진계 스님의

우리가 이 참사람으로 살 때에 이 참사람은 현대과학 문명의 노예로 전락한 인류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경허, 만공, 성철, 서용, 송담, 진계스님 외

도서출판 송과학

혼돈의 시대를 헤쳐가는 지혜는 선자들의 세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은 묵언(默言)하는 일이다. 이는 이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이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옛 사람의 말에,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가는 곳마다 걸린다 하였으니, 이 어찌 믿지 않을 것인가.

- 효봉스님
「허밍한 생각이 감자기 일어나거든 한 칼로 두 통강을 내어 버려라」중에서

중도문이라는 것은 일체만물, 일체만법이 서로 융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모순과 대립을 완전히 초월하여 전부 융화해 버리는 것, 즉 대립적인 존재로 보았던 절망과 에너지가 융화되어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중도'라 하면 '중도'는 중간이다 하는데 그것은 불교를 꿈에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 성철스님
불생불멸(佛生不滅)과 중도(中道)중에서

참사람은 세계를 형성하고 역사를 창조하는 과업을 합니다. 능동적 주체로서 참사람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합니다.

우리가 이 참사람으로 살 때에 이 참사람은 현대과학 문명의 노예로 전락한 인류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 서용스님
「참사람 結社文」중에서

경허, 만공, 성철, 서용, 송담, 진계스님 외

도서출판 송과학 (02)929-9787 직

佛敎大辭典

불교사전의 금자탑! 불교대사전 출간!

最多語彙 · 最新譯解 · 最善編輯

제작기간 10년, 기존의 불교사전과 전혀 다른, 고대에서 현대까지 불교의 핵심적인 용어 6만3천여개를 선정하여 문장을 간결하고 평이하게 현대적 어휘로 표현하였다.

최고급양장/크라운판 上·下 3,600면/정가220,000원

불교를 바로 알고 싶습니까!

질에 10년을 다녀도, 날마다 법문을 들어도, 부처님의 정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불교대사전』을 보십시오. 부처님의 세상이 보입니다.

불교대사전 정가 220,000원
밀교사전 정가 70,000원 (주문가230,000원)

◆ 신한은행: 324-12-407937
◆ 농협: 053-01-102503 (예금주: 김정길)

도서출판 흥법원 · 서울 중로구 견지동 55-2 TEL(02)734-7614, 739-8745, 팩스735-2344